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Shell goes big with charter deals for 10 new LNG-fuelled VLCCs

대우조선해양이 LNG추진 VLCC 10척을 수주한다고 보도됨. 슈퍼메이저 Shell은 Advantage Tankers, AET, International Seaways로부터 7년 장기 용선계약을 체결했으며, 3개의 선주사들은 2020년 대우조선해양과 LNG추진 VLCC 총 10척에 대하여 LOI(건조의향서)를 체결한 바 있음. 척당 선가는 1억달러로 예상된다고 보도됨. (TradeWinds)

Product tankers sold for recycling amid strong scrap market mood

2척의 탱커가 높은 scrap 가격에 폐선되는 등 폐선 시장이 바쁘다고 보도됨. 최근 폐선을 위해 매각된 2척의 경우, 2001년 건조된 109,000DWT급 탱커 1척이 ldt당 449달러에 매각됐으며 1997년에 건조된 33,500DWT급 탱커는 ldt당 475달러에 매각 되는 등 폐선 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다고 보도됨. (TradeWinds)

유류 조선 설비 재가동 안한다

글로벌 상위 조선업체들은 일시적으로 조업을 중단했던 건조 설비를 일정 기간 동안 가동을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보도됨.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데 따라 선가를 올리고 건조 설비를 타이트하게 유지하기 위함이라고 보도됨. 조선사들은 유류 설비를 재가동하기 위해서는 향후 10~20년 동안 계속 가동시킬 수 있는 건조물량이 뒷받침해주어야 한다고 언급함. (선박뉴스)

New Times, LNG추진 벌크선 대량 수주 전망

중국 민영 조선사 New Times Shipbuilding이 210,000DWT급 이중연료추진 뉴캐슬맥스 벌크선 4+8척을 수주할 전망이라고 보도됨. 총 계약금액은 8.2억달러 수준이고 확정분의 납기는 2023년 상반기로 알려짐. 중국내 언론은 발주처가 노르웨이 선주 2020Bulkers라고 추정하고 있다고 보도됨. (선박뉴스)

Maersk linked to \$1bn sale of its reefer container unit

세계 1위 컨테이너선사 Maersk가 10억달러 규모의 냉동컨테이너박스 사업부를 매각한다고 보도됨. Maersk의 관계회사 Maersk Container Industry(MCI)가 생산하는 냉동컨테이너박스는 COVID-19로 인한 시황 내 수급 불균형이 발생하면서 수요가 급등한 바 있음. Maersk 측은 이러한 뉴스에 대해 따로 부정하지 않았다고 보도됨. (TradeWinds)

한화에어로스페이스USA, 미국P&W 최고 파트너 '골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미국법인(Hanwha Aerospace USA)이 세계적 항공엔진 제조사 P&W의 최고 파트너로 인정받는 '골드'(Gold) 등급을 받았다고 보도됨. P&W의 전략적 파트너로 확실히 자리매김한 것은 물론 사업확대를 위한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고 보도됨. 앞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영국 룰스로이스로부터 세계 최초로 양산적합성(PPAP) 자체 승인 권한을 획득하면서 세계 항공업계 최고 수준의 품질 경쟁력을 입증했다고 보도됨. (이데일리)